

의미 및 표현형식에서의 조중속담비교

왕 흠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잘 알뿐만아니라 력사와 지리,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도 잘 알며 전설과 속담도 이야기할줄 알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일성전집》 제29권 186페이지)

정치와 경제, 력사와 지리, 문화와 예술을 잘 아는것과 함께 속담을 많이 알고 그것을 옹계 활용할줄 아는것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운택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조선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속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속담이란 근로하는 인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활과 투쟁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들의 사회적지향과 견해같은것을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속담은 성구적인 단어결합과는 달리 완결된 형식으로 독자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속담은 은유, 직유, 의인법, 야유, 과장, 반복, 대구, 대조 등 여러가지 문체론적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표현의 함축성과 세련성을 잘 보장하여준다.

이 글에서는 의미와 표현형식에서 조중 두 나라의 속담을 비교하여 중국인 조선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속담학습방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려고 한다.

외국어학습은 단순히 해당 언어학습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것이다. 한 나라의 사상과 문화, 력사와 풍속 등은 언어구조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속담은 대표적인 언어표현형태라고 할수 있다. 속담은 짧은 문장속에서 뜻을 생동하게 나타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쓸모있는 경험과 교훈이 담겨져 있기때문에 일단 알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외국어를 배우는 최종목표는 해당 외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모국어소유자수준의 언어기능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자는데 있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는데 말도 어떻게 구사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속담을 잘 알고 정확히 구사하는것은 목표언어의 소유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속담이 간결한 언어표현속에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외국인학습자에게 있어서 속담의 리해와 사용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해결할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것과 관련된다.

조선의 속담에는 조선고유의 풍속과 습관, 생활에서 체험한 경험과 교훈 등을 조선사람들의 감정에 맞는 표현방식으로 창조한 속담이 매우 많다.

실례로 조선속담 《누워서 떡 먹기》를 중국어로 표현하려면 《躺着吃糕》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지 중국어에서는 《躺着吃糕》보다 《不费吹灰之力》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입으로 먼지를 불어서 없애버릴 정도의 자그마한 힘도 필요없다는 말로서 그냥 입을 벌리기만 하

면 먹을것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처럼 두 나라 속담에는 뜻은 같지만 표현방식이 다른것이 많기때문에 중국인학습자의 조선어사용에서는 적지 않은 오유가 생긴다. 중국인 조선어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적차이로 인한 오유를 막고 실지 언어사용에서 속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구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서 조중 두 나라 속담의 비교는 효과적인 속담학습방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조중속담에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인학습자들은 다른 문화소유의 학습자보다 쉽게 조선속담을 습득할수 있다. 이것은 다른 문화소유의 학습자와는 달리 중국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용속담이 선정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중 두 나라 속담에서 공통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본적인 룬리도덕관, 선악관 등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다.

실례로 다음과 같다.

○ 고생끝에 락이 온다-苦尽甘来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种瓜得瓜, 种豆得豆

○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虎死留皮, 人死留名

○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强中自有强中手

○ 아는것이 힘이다- 知识就是力量

○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不入虎穴, 焉得虎子

○ 긴병에 효자(가) 없다-久病床前无孝子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你有来言, 我有去语

둘째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된 어휘들이 쓰이고있는 속담들이 있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밀구멍으로 호박씨 깬다

<중국> 死猪不怕开水烫 (죽은 돼지는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老虎屁股摸不得 (호랑이엉덩이를 만지면 안된다.)

셋째로, 장애자 및 지능저하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다.

<조선>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멍어리 뺨가슴 앓듯

<중국> 瞎子点灯白费蜡 (장님 불을 켜 초만 낭비하듯)

傻人有傻福 (바보도 자기의 복이 있다.)

넷째로, 같은 문체론적수법을 리용한 속담들이 있다.

두 나라의 속담들에서는 대조법과 과장법에 의한 속담들을 찾아볼수 있는데 이것은 속담학습을 통하여 문법도 동시에 배울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준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 옷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중국> 人无头不走, 鸟无头不飞 (사람은 머리가 없으면 갈수가 없으며 새가 머리가 없으면 날수가 없다.)

河水无情, 人有情 (강물은 무정하지만 사람은 정이 있다.)

우의 실례들은 대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속담들이며 아래의 속담들은 과장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표현들이다.

<조선> 찬물도 우아래가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중국> 一个鼻孔出气 (한 코구멍으로 숨을 쉰다-친한 사이의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舌头底下压死人 (혀밑에 사람이 깔려죽는다.)

다음으로 조중속담에는 두 나라의 독특한 문화, 풍속, 지리 등의 영향으로 의미는 같지만 표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다.

조선의 음식에 관한 속담을 보면 조선민족이 식생활에서 예나 지금이나 즐겨먹는 《밥, 떡, 국, 고추장, 김치, 송늬》 등의 어휘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속담들에서는 다른 속담들에 비하여 민족적특성이 더 진하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중국속담에도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름이 많이 나와있다.

실례로 《饺子(만두)》, 《馍(쪼빵)》, 《面条(국수)》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속담에는 요리이름과 양념이름 등도 많이 사용된다.

두 나라의 속담에는 음식문화와 역사외에도 생활관습, 자연환경 등의 차이로 하여 표현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속담들이 적지 않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음식문화와 관련한 속담

○ 누워서 떡 먹기-不费吹灰之力(먼지를 불어서 없애버릴 힘도 없다.)

○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가-听螻蛄叫还不种庄稼(땅강아지 소리를 듣는다고 곡식을 안 심겠는가.)

○ 굴러온 호박-天上掉馅饼(하늘에서 떨어진 구운 빵)

○ 속 빈 강정의 잉어등같다-如同花枕头(수놓은 베개같다.)

— 역사 및 고사와 관련한 속담

○ 함흥차사-肉包子打狗一去不回(고기만두로 개를 때리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 억지춘향(이)-赶鸭子上架, 强人所难(오리보고 사닥다리에 올라가라고 한다-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다.)

○ 범도 제 말 하면 온다-说曹操, 曹操到(조조이야기를 하니 조조가 온다.)

— 생활관습과 관련한 속담

○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忘了穿开裆裤的日子(개구멍바지 입던 시절을 잊어버리다.)

○ 미주알고주알 켜다-打破砂锅问到底(뚝배기까지 깨보면서 끝까지 캐묻는다.)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响水不开, 开水不响(소리가 나는 물은 끓지 않는 것이고 끓는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 자연환경과 관련한 속담

○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낫다)-众人拾柴火焰高(만명의 손을 합하면 산도 끌고 간다.)

○ 하루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夜夫妻百夜恩(하루밤의 부부도 부부의 정이 있다.)

○ 부자가 망해도 삼년 간다—瘦死的骆驼比马大(말라죽은 락타가 말보다 크다.)

이밖에도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표현형식에서 다른 속담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중속담에 대한 비교연구는 의미 및 표현형식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소재의 측면, 문체론적수법의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두 나라의 속담에 대한 비교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중국인 조선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속담학습방법을 제공해줌으로써 조선속담의 특성을 더 잘 알도록 하는데 이바지해나갈것이다.

(필자는 중국실습생임)